

## 권은희 의원도 탈당 새정치 分黨 현실화

최재천 의원도 ... 장병완·박해자·주승용·박지원 탈당 초읽기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이 결국 분당의 길로 접어들었다. 문재인 대표가 사퇴를 공식적으로 거부한데 대해 김한길 전 공동대표 등을 중심으로 한 당내 비주류의 탈당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관련기사 4면)

28일 새정치민주연합 비주류 성향인 최재천(서울 성동갑), 권은희 의원(광산 을)이 탈당했다. 최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저는 19대 국회를 마지막으로 현실정치를 떠나고자 한다"며 "새로운 정당 질서를 구축,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에 힘을 보태고 내각제 개헌 등에 나서겠다"고 내년 총선 불출마 입장과 탈당을 선언했다. 최 의원은 안철수 신당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박주선·김동철·임내현 의원에 이어 권 의원의 탈당으로 새정치연합은 광주에서 과반이 무너졌다. 광주 국회의원 8명 가운데 현재 새정치연합 당적을 유지

하고 있는 의원은 강기정·장병완·박해자 의원 등 3명에 불과하다. 여기에 장병완·박해자 의원 등도 이르면 내년 1월 탈당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김한길 전 공동대표 계열로 분류되는 최재천·권은희 의원의 탈당을 시작으로 새정치연합 비주류 진영의 탈당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에서도 주승용 의원이 내년 1월 초순 후속 탈당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박지원 전 원내대표의 결단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권은희 의원은 "여기에 DJ(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계도 집단 탈당에 나서는 등 새정치연합에서의 호남 세력 이탈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국에서는 문재인 대표가 선대위 출범은 수용하면서도 대표직 사퇴를 분명하게 거부하고 비주류 진영에서는 탈당으로 대응함에 따라 새정치연합의 분당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기업하기 좋은 지역 장흥군·완도군

상의, 경제활동 친화성 평가

광주·전남 지자체 하위권

광주·전남지역 27개 자치단체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마인드가 대체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5개 자치구의 '경제활동 친화성'은 전국 최하위권에 속했으며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도 역시 전남 서남권을 중심으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

2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내놓은 '2015년 기업환경순위 및 전국규제지도'에 따르면 규제 합리성과 행정시스템, 공무원 태도 등을 토대로 한 '기업 체감도'와 공장설립, 다기주주택 신축, 일반음식점 창업 등 6개 지표를 가중합산한 '경제활동 친화성'을 놓고 평가한 결과, 장흥은 2개 지표 모두 최고인 S등급을 받아 광주·전남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꼽혔다. 완도는 경제활동친화성에서 4위로 S등급을 받았다.

광주시 5개 자치구는 기업 체감도에서 남구와 북구, 광산구가 A등급, 동구가 B등급, 서구가 C등급을 기록해 서구를 제외하고 평이한 반응을 이끌어 냈으나 경제활동 친화성 평가에서는 동구와 북구, 광산구가 C등급, 서구와 남구가 D등급을 받아 전국 최하위권에 속했다. 전남 지역 지자체 중에선 경제활동친화성 순위에서 완도와 장흥, 여수, 곡성, 함평, 순천, 고흥, 강진, 무안이 S등급으로 우수 평가를 받은 반면 영광은 C등급으로 저조했다. 기업체감도 순위에선 장흥과 곡성이 S등급으로 두각을 나타냈고 목포와 완도, 무안, 영암, 해남, 영광, 진도가 C등급을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86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228개 지자체에 대한 기업의 주관적 만족도인 '기업 체감도'와 '경제활동 친화성'을 조사해 대상 지자체를 S(상위 5%)·A(5~30%)·B(30~70%)·C(70~90%)·D(95~100%) 등급으로 나눠 평가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 한·일 '위안부' 합의...정대협 "담합" 반발

일, 아베 사죄·10억엔 출연

법적 책임문제는 피해자

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 노력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2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극적으로 타결했다. 한일간 해묵은 과제이자 '난제 중의 난제'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1991년 고(故) 김학술 할머니가 최초로 증언에 나서면서 위안부 문제가 첫 공론화된 지 24년 만이다.

(관련기사 2·6면)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인정하고 아베 신조 총리도 총리대신 자격으로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시했다. 그러나 핵심쟁점이었던 일본 정부의 법적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은 통감한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법적책임인지는 명확히 하지 않았다.

아베 총리의 사죄와 일본 정부의 책임통감에 법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위안부 피해자는 물론 한국 정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관련단체가 "외교적 담합"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아울러 양국 외교장관은 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한국 정부가 설립하고, 재단에 일본 측에서 10억엔을 출연하기로 합의했다.

기시다 외상은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발표문을 통해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



고개숙인 日 외무상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28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 협상 최종 타결을 발표한 뒤 양국 국기를 향해 경례하는 동안 윤병세 외교장관이 안내하고 있다.

에 깊은 상처를 입은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물론, 아베 총리가 총리대신 자격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재단에 일본측이 예산을 출연하는 것과 관련, 우리 정부는 일본측이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전제

로 "이 문제(위안부)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예산출연 약속을 전제로 미래형 표현을 사용하긴 했지만 사실상 위안부 문제의 '최종 해결'임을 확인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또 일본측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에

대해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외무상은 이날 회견 후 일본 취재진을 상대로 한 브리핑에서 법적책임 문제에 대해 "법적입장(최종 해결됐다)는 과거와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서 일본 정부 예산 출연에 대해서도 "배상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연합뉴스

## 尹시장 "청년일자리 창출 최우선" ...李志사 "동양화 비엔날레 창설"

2016 광주시장·전남도정 방향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가 2016년도 시정과 도정 방향을 설정했다. 윤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내년도 시정 최우선 과제로 꼽았고, 이 지사는 '남도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정시모집 | 062)605-1114

문에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꺼내들었다.

(관련기사 3면)

윤 시장은 28일 오전 광주시장 5층 브리핑룸에서 송·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2016년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윤 시장은 또 "광주시의 3대 먹거리산업인 자동차, 에너지, 문화콘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해 광주형 선순환 경제실현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기가정 긴급복지 서비스 확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등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는 정책 강화와 무등산 정상 방공포대 이전 본격 추진 등을 통해 살기좋은 푸른도시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특히 지역 최대 현안인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 결정이 지연된데 대해 "연말 안에 결정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뒤 "시의회, 시민단체 등과 일부 견해차가 있고 몇 가지 토론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의견을 충분히 들어 때늦지 않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전통문화예술자원을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남도문에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내년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송년·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부터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남도문에 르네상스를 2대 전략 프로젝트로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산업화의 기초 속에서 전통문화에 대해서 조명을 덜한 것이 아닌가 반성에서 남도문에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출발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남종화의 맥을 잇는 '동양화 비엔날레'를 창설해 한·중·일·북한·대만 등 동북아시아 5개국이 참여하도록 하고, 담양 소재원을 중심으로 '한국전통정원'을 조성하는 등 국제 교류와 재해석을 통해 기존 자산의 가치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LEXUS HYBRID ZERO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All New ES 300h

광주 전시장 : 080-384-7733(광주 서구 상무대로 881) | 전주 전시장 : 080-263-7743(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621) | www.hyosunglexus.com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 ES 300h(배기량 2,494cc, 공차중량 1,685kg, E-CVT 변속기), 복합연비·16.4km/ℓ(도시연비·16.1km/ℓ, 고속도로연비·16.7km/ℓ), 복합CO<sub>2</sub>배출량·103g/km, 등급·1등급·이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악기온도에 따라 실제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All New ES 300h

당신은 감동하고 세상은 주목한다

차를 향해 걸어가는 순간부터 시작된 감동은 차에 오르는 순간과 드라이브의 순간 그리고 차에서 내리는 순간까지 완벽하게 지속될 것입니다. 당신의 일상조차 럭셔리하게 바뀌게 될 렉서스 All New ES 300h. 당신은 감동하고 세상은 주목할 단 하나의 하이브리드입니다

LEXUS AMAZING IN MOTION